

환영사

정무에 바쁘신 가운데/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의/전국 참가
자들을/격려하여주시기 위해/자리를 함께하여 주신/한명숙 환경
부장관님, 김귀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상임회장님, 여러 광역(자치)단체

추진기구 회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활약하시는 대회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는 최근에/우리나라의 개발의 상징이었던/청계천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비롯한/서울 청사

앞에/시민의 관장을 조성하는 일과 시내 곳곳의 신도시 개발사업

으로/눈부신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격변 속에 있는 서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대회는 1999년/제주도에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구성결

의 후/다섯 번째를 맞는 대회입니다. 해마다 대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바는/여의치 않은 여건 하에서도/지방의제 21 추진기구

는/많은 일을 창의적이고도/알차게 일궈내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매년 그간의 활동성과를 평가하며/새로

운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서/금년도의 슬로건은/새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정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에 맞춰/인터넷을

통한 시민공모로/지방의제21이 열어가는 분권과 참여의 세상'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기구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간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정부의 화두이기도 한 분권과 참여문제는 지난 7, 8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과제로서 여러분들은 분권화시대의 주역으로 자부해도 지나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큼니다.

지난해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에서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선언한바 있는 '의제21에서 행동21로'라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결의도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추석연휴기간동안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의 피해로 여러 지자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와 녹색 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환영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한정우, 서울특별시, 녹색위, 그리고
대회를
주최하신
기원하
고
축하합니다
한정우, 녹색위,
서울특별시, 녹색위,
한정우

제5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축 사

- 일 시 : 2003. 9. 23 ~ 25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올림픽공원 內)
- 주 최 :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 주 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참 석 : 400여명 (환경부장관, 박영숙 녹색위 공동위원장 등)

1,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김귀곤, 박경린, 안민동 공동 회장님과 한명숙 환경부장관님, 박영숙 녹색위 공동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을 찾아주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관계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지방의제 21이 이끌어가는 분권과 참여 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발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주체인 시대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방정부 시대를 이끌고 시정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한 축 역할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지방의제21 추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각계 여러분들께서 분권과 참여의 세상에 리더가 되어, 각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주역이 되어 주시리라 믿으며, 이 대회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해오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는 서울을 세계 일류의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녹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78% 이상이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은 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교통소통은 물론 대기환경도 대폭 개선되고, 마음의 여유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2.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국제사회가 도시환경의 일대 혁명으로 평가하는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울의 복개하천 전반에 대하여 복원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뚝섬에 35만여평의 서울 숲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녹지를 늘리는 그린트러스트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재단 후원

18045

우리시는 천만시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쾌적하고 아름답고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물
려주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지방의제21 실천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분야별 분임 토론, 그리고 나인 메이저 토론회 등 본 대회를 통하여 지방의제 21이 보다 활성화 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더불어 이 자리가 서로간의 이해를 통한 우호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날 예정되어 있는 서울 현장체험에도 참석하시어 청계천 복원 현장을 둘러보시고 덕수궁, 비원 등 서울 역사문화와 활기차고 생기있는 현대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동대문시장 등 서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소속 지역사회와~~ 맥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민공민. 공민공민*
감사합니다.

2003. 9.23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우석